

아티스트 라운지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주연 김지현

'대학로 배우'에서 '대세 배우'로 ... "공연이 제일 재미있어요"

‘뮤지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무대 연출’. 지난해 3월 보기도드런 런웨이 형태의 무대에서 초연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에 쏟아진 찬사였다. 그런데 그 ‘혁신’은 위기에서 나왔다. 개막 직전 제작사가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다. 공연이 취소될 위기에서 제작사는 규모를 줄이고 개막을 3주 늦춰 공연을 강행했다.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당 빈 무대를 배우들의 에너지로 꽉 채우며 큰 호응을 얻었고, 10개월 만에 국내 최대 규모 극장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1월 23일~ 2월 27일).

여주인공 ‘여옥’을 다시 맡은 김지현(38) 배우는 “그땐 사고 없이 잘 끝나기만 바랐는데, 이번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초연 때 사실 내부적으로 공연이 두 번 미뤄지면서 기다서다 했어요. 개막 한 달 전에 연출님이 무대를 싹 바꾼다며 시간을 달라시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잖아요. 연습기간이 딱 3주 남는 건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다행히 잘 정리가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짧고 굵게, 정말 밀도있는 작업이었죠.”

어떻게든 공연을 올리기 위해 출연료 수령을 자진해서 미루는 등 배우들에게도 일정 부분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완벽한 작품’으로 각인됐다.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은 상황이었죠. 눈에 보이는 세트나 기술적인 요소가 거의 없으니 관객이 보기에 비어보일 수 있잖아요. 배우들이 채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관객이 사방을 감싸는 공간에서 하다보니 어디 도망칠 곳도 없고, 치열하게 움직여 감동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문득 돌아보니 저뿐 아니라 모든 배우가 그러고 있던군요.”

주변에서 ‘힘들겠다’고 걱정했지만, 그에겐 오히려 편안했다. 팀웍은 끈끈해지고, 공연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막상 해보니 배우로서 이보다 좋은 컨디션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도구나 신경 쓸 부분이 없으니 연기에만 집중하면 됐죠. 연기하는 내내 너무 편안하게 무대에서 다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배우들이 서로 다독이면서 작품으로 뽐낼 뭉쳐진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뜨거운 공연은 오랜만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에게 완벽한 공연이었죠.”

비어 있어서 더욱 완벽한 무대
1991년 방영된 원작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당시 청춘스타였던 채시라·최재성·박상원이 주연을 맡아 최고 시청률 58%를 기록한 ‘국민드라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사람들의 비극을 그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뮤지컬로 제작됐다. “초등학교 시절 재미있게 본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당시 보지 못했던 영상미에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죠. 워낙 연출이 충격적이고 명장면이 많았잖아요. 뱀 뜯어먹는 장면은 생략됐지만, 철조망 키스는 무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웃음)”

투자 사기 딛고 뜨거운 무대 입소문
10개월만에 세종문화회관 입성
여주인공 여옥의 주체성 더욱 부각
“드라마 명장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30년 전 드라마지만 ‘여옥’의 캐릭터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다. 거대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강력한 생존의지로 그 시대를 살아냈을 뿐이지만 결국 이념으로 재단당해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은 지금 시대에도 짙은 공감을 부른다. “그 당시 채시라씨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원작 소설보다 드라마에서 여옥이 캐릭터가 더 주체적이고 당차게 그려졌어요. 공연은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부각됐죠. 방대한 분량을 압축하면서 여옥이 나오는 순간은 좀 더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장면들로 편집했어요. 드라마에서 여옥이 해어졌다면 공연에선 스스로 이별을 택하는 식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여성으로 진화한 거죠.”

김지현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배우는 아니다. 하지만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러브레터’, 연극 ‘프라이드’ ‘카포네트리로지’ 등 매니어를 몰고 다니는 무대에서 15년 이상 전뺨가 굵은 ‘대학로 배우’였다. 그런데 지난해 ‘여명의 눈동자’ 이후 ‘대세 배우’로 도약했다.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 ‘스위니토프’에서 조승우의 상대역인 러브 부인 역까지 꿰찼다. “이제 은퇴해도 여한이 없겠다는 얘기를 들어요. (웃음) 조승우·홍광호·박은태 같은 최고의 파트너를 한꺼번에 만났으니까. 큰 공연장을 끌고 가는 주인공으로서 최고의 프로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스스로 재미 찾아내는 게 공연의 매력
스스로 “노래로 감동 주는 배우는 아니다”라고 겸손해 하지만, 사실 그는 2006년부터 통령 기록을 세우고 있는 창작뮤지컬의 신화 ‘김종욱 찾기’의 원조 배우다. 2004년 한예종 졸업작품으로 발표될 때 주연을 맡았는데, 그는 또 “원조는 오나라 배우”라며 손사래를 친다. “제가 처음 하긴 했지만, 2006년 상업 프로덕션으로 제작됐을 때 오나라 언니가 하는 걸 보고 저런 게 바로 뮤지컬 배우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어려워했던 역할을 그 자체가 돼서 하더군요.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하지만 ‘여명의 눈동자’의 여옥만큼은 ‘내 역할’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어렵게 올린 작품의 초연 배우로서 애착도 크지만, 제가 가진 감성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관객들도 제가 ‘치연하다’ ‘사연있어 보인다’ 고들 하시는데, 여옥의 슬픔과 쓸쓸함은 굳이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팬들은 ‘대세 배우’로 꼽히는 그가 어디 갈까봐 걱정이지만, 하지만 15년 이상 대학로를 지켜온 건 “공연이 제일 재미있어서”란다. “작년에 2인극 ‘오만과 편견’에서 1인 9역을 했어요. 무대에 아무 것도 없이 배우가 손수건 하나 들고 다른 사람이 되는데, 관객은 그 이야기를 믿고 따라오잖아요.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찾아서 보는, 그게 바로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죠. 무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생동감이 좋아서 무대를 못떠날 것 같아요.”

/유주현 기자 yjoo@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사진 김경빈 기자



‘여명의 눈동자’는 격랑의 시대 운명에 휘둘렸던 한국인의 비극을 그린다.

〈사진 수키컴퍼니〉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자동차 배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정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저로,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맥,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생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정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학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태택 ☎062)222-2516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
☎ 010-8005-0188

진주공방
동구 자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